

다”가 二重母音으로 음라우트된 語形인데 (§4.1.1.), 그것은 (1)(3)의 口訣文과 번역문과의 比較에 의해서도 밝히 드러난다. 用例(4)는 臣下인 太史傅毅가 王(後漢明帝)에게 꿈풀이하는 말이다. (2)~(4)의 事件時는 發話時와 대체로 一致한다. 그것은 “-웃-”의 統合語幹이 (1)과는 달리 [+상대성]의 動作類에 속하는 形容詞와 指定詞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用例들은 화자와 청자가 共同으로 參與하는 相關의 場面이기는 하지만 兩方的 通報行爲를 遂行한다고 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一方的 通報行爲에 가깝다. 用例(2)는 獨白임에 틀림없고(前述) (1)은 부처의 교리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글귀인 偈로써 하는 말이며 (3)은 화자가 허공에서 내려와 찬탄하는 말로서 正常的 對話의 狀況이 아니다. (4)도 王은 꿈풀이를 듣기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5) 우흐론 日月에 니를오 아래론 輪團에 니를오 가운더론 萬物에 니르리 낫나치 子細히 亂히에 亨샷다(=上極日月하고 下極輪團하고 中極萬物히 令—詳釋也) 샷다(楞嚴 2:34b)

(6) 正位에 드르샤 正法을 니르샤 二乘에 머리 견내뻬샤 녹의야 退轉이 업스샷다(月釋 17:26a)

위의 用例들은 單獨의 場面, 곧 地文에 쓰인 것들이다. (5)는 “極汝見源”에 대한 험주이고 (6)은 “不退法輪”에 대한 험주다. 대화가 아닌 만큼 작자(업적히는 譯者)의 독자에 대한 一方的 通報行爲라고 할 것이다. “-웃-”이 表示하는 時相의 意味는 앞의 相關의 場面과 비슷하다. (5)는 事件時가 발화시보다 앞서고 (6)은 일치한다. 그것은 統合用言의 動作類의 특성에 말미암는다.<sup>19)</sup>

相關의 場面보다는 單獨의 場面に 우세하게 나타나고 時相과는 無關한 “-웃-”의 기능은 무엇일까? “-웃-”이 消去된 活用形과의 比較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用例 (1)~(6)의 活用形에서 “-웃-”이 除去된 語形을 제시한다.

- (1') ...일우게 亨시이다 cf. (1)
- (2') ...奇特亨시다. cf. (2)
- (3') ...르亨시이다 cf. (3)
- (4') ...괴시이다 cf. (4)
- (5') ...亂히에 亨시다 cf. (5)
- (6') ...업스시다 cf. (6)

이들은 모두 說明法語尾 “-다”에 의한 不定法의 형태다. “-웃-”이 쓰인 문맥에 이런 活用形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같은 상황에 나타나는 같은 品詞의 같은 活用形의 例文과 比較할 수밖에 없다.

(7) “내 億劫엿 顛倒想을 슬우샤 僧祇를 디나디 아니亨야셔 法身을 亂게 亨시이다”(口訣文省略) (楞嚴 3:111b-112a) cf. (1)

(8) “太子人 모미 傷亨야 命이 머디 아니亨시이다”(釋詳 11:21b) cf. (2)(3)

19) 處容歌의 아래 用例도 통합용언이 [-상대성]의 動作類를 表示하므로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는 것으로 解釋해야 한다. “消滅하시리로다”와 같은 풀이(朴炳采 1968:138)는 적어도 文法的 觀

(9) 王이 이 돌래 刻히사 南郊에 무더 두라 흐시다(月釋 2:49b) cf. (5)(6)

(7)은 阿難이 世尊 앞에서 부처를 기리는 말인데 (1)과 같이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한다. (8)은 대신이 왕에게 하는 말로서 事件時와 發話時가 일치한다. (9)는 地文의 用例로서 작자의 말이다. “흐다”의 動作類의 특성이 [-상태성]이므로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9)의, “-웃-”이 缺如된 語形은 그것이 포함된 (1)~(6)의 語形보다 兩方的 通報의 기능이 강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면 “-웃-”이 포함된 語形의 一方的 通報기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웃-”의 지시내용과 有關하다.

화자가 사태를 경이의 대상으로 파악할 때 “-웃-”이 선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3), (5)(6)은 모두 부처의 행적을 驚異의 對象으로 인식하는 例로 간주된다. 用例(2)를 (8)과 비교해 보면 前者는 부처가 아라한을 이루어 내는 것을 경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웃-”이 쓰였으나 (8)은 신하들이 태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웃-”이 缺如된 것이다. 따라서 前者의 例文에는 “놀랍게도”와 같은 적극적 情感(Emotionalität)表示의 부사가 插入될 수 있다. 그러나 後者에서는 태자의 죽음이 기대된 것이므로 “슬프게도”와 같은 소극적 부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sup>20)</sup> 用例(4)는 다른 用例와 性格이 다르다. 話者의 情感이 표시된다고 하기보다 樣態性(Modalität)의 觀點에서 事態를 判斷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例文에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을 띤 부사를 插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웃-”의 一方的 通報기능은 이러한 화자의 정감적 내지 양태적 사태 파악의 태도와 직접 관련된다.

“-웃-”에 이어 “-入-”의 意味를 살펴보기로 한다.

(10) 네 鳳翔에 이서 金閨에 籍을 다뫼 通호소라(原詩省略)(杜諺 7:26b)

(11) “우리들토 울워습는 견츠로 舍粒 일즈바다가 塔 일어 供養호수보려 ㅎ야 머리서 오소이다”(釋詳 23:53b)

(12) 우리 무른 슝으로 두루 브터든너 世上入 이레 제여곰 艱難호소라(原詩省略)(杜諺 15:51a)

(13) 도즈볼 수머 흔번 흐러나소니 주리며 치우메 기리 서르 ㅂ라노라(原詩省略)(杜諺 8:29a)

用例(10)(11)(13)은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앞선다.<sup>21)</sup> 그것은 統合되는 用言의 動作類가 [-상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用例(12)는 事件時와 發話時가 일치하는데 그것은 “艱難

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三災八難이 一時 消滅호삿다(樂學軌範)

20) 화자의 命題에 대한 主觀的 評價를 表示하는 이른바 Modalwörter는 樣態性(Modalität)과 情感性(Emotionalität)의 두가지 下位區分이 가능하며 後者는 ‘기쁨’과 關係되는 적극적 正感(positive Emotionen)과 ‘슬픔’과 關係되는 소극적 正感(negative Emotionen)의 두가지가 있다. 자세한 것은 Helbig & Buscha (1975:448-451) 참조.

21) 動動에 나타나는 다음 用例는 用例(11)과 같이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앞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십시다”와 같은 請誘法의 解釋(梁柱東 1947:77-78; 朴炳采 1968:72-73)은 文法的 觀點에서는 許容되지 않는다. 허웅(1975:954)에도 이런 점이 지적되어 있다.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으라 오소이다(樂學軌範)

하다”의 動作類가 [+상태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時相的 方面의 不定性은 “-으-”을 檢討하는 마당에서도 나타났었다.

“-오/우-”와 統合되는 “-스-”의 意味를 밝혀 내는 일은 “-스-”이 缺如된, 다시 말하면 “오/우-”만을 取하는 語形과 比較하는 것이다. 用例(10)~(13)에서 “-스-”을 除去해 보자.

- (10') ...通호라 cf. (10)
- (11') ...오이다 cf. (11)
- (12') ...艱難호라 cf. (12)
- (13') ...호리나니 cf. (13)

위의 用例에 準하는 실지의 例文과 比較해 보자.

- (14) “내 지복 이삼 저귀 受苦호미 이리호니 이런 因緣으로 道理를 得호라”(月釋 10:26a)
- (15) “나는 齋米를 求호야 온 디 아니라 大王을 보스랴라 오이다”(月釋 8:90b)
- (16) “하늘 우과 하늘 아래 나뉘 尊호라”(月釋 2:38a)
- (17) “늬 출 쓰디 이실씨 가져 가니 엇메 잡는다”(月釋 2:13a)

“-으-”이 缺如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밀줄친 말의 事件時는 [-상태성]의 用言일 때는 發話時에 先行하고 (14, 15, 17), [+상태성]일 때는 일치한다(16). “-스-” 插入形과 比較해 볼 때 時相이 共通되고 場面도 다같이 주로 相關性을 띤 對話인 점에서 또한 共通的 特性을 보여 준다. 또 主體도 다 같이 話者이므로 統辭上의 差異도 발견할 수 없다. “-으-”의 경우와 같이 화자의 情感的 내지 樣態의 態度와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

用例(10)은 杜甫 자신이 옛날 鳳翔의 行在에 있을 때는 벼슬아치로서 신분증을 보이며 侍御와 함께 마음대로 宮門에 드나들었다는 뜻이다.<sup>22)</sup> 과거의 그러한 行動을 현재의 처지와 비교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화자의 情感的 態度가 엿보인다. 그런데 用例(14)는 華色比丘尼가 大衆에게 하는 말로서 자기가 道理를 얻게 된 경위를 단순하게 陳述한 것이다. 이때도 화자가 자기 行爲를 肯定的으로 보거나 積極的으로 確認하는 立場에 서게 되면 “得호소라”라 말할 수 있다. (11)은 時遮頗國 등이 四兵을 일으켜 拘尸王에게 와서 하는 말로서 자기들의 行爲를 積極적으로 確認하는 화자의 태도를 살필 수 있다.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 부사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이 缺如된 (15)는 比丘가 圓安부인에게 하는 말인데 情感性을 부여할 意圖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11)과 비교할 때 “-스-”이 插入되지 않아야 할 理由를 찾기가 힘들지만 화자는 “-스-” 插入形을 取하지 않았다. 화자가 아무리 사태를 情感的 내지 樣態의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言語形態로 實現되지 않을 수도 있다. (15)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用例(12)는 다른 사람들은 잘 되었는데 우리들은 그와는 달리 각자가 모두 세상의 어려운 처지에 飄泊하는 신세임을 한탄하는 것이다. 한편 (16)은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하는

22) “-스-, -으-”이 插入된 杜詩諺解의 引例에 대한 풀이에는 李丙燾교수의 가르침에 힘입었다.

말이다. 형태가 缺如되었으므로 정감성을 부여할 意圖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은 형제가 도적을 피하여 서로 흩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태도가 보인다. 그런데 (17)은 석가의 前身인 영무가 舍利弗의 전신인 발입자에게 하는 말로 자기의 行爲가 단순하게 陳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疑問法과 命令法에 나타나는 “-스-”은 樣態的 態度와 주로 관련되지 않나 한다.

(18) “므슴 方便올브터 三摩地에 드스다”(口訣文省略)(楞嚴 5:31b)

위의 用例는 “-스-”이 缺如된 다음과 같은 例文과의 比較에 의하여 그 意味가 把握되어야 한다.

(19) “엇던 行業을 지서 惡道에 버리딘다”(月釋 21:56a)

用例(19)의 統辭構造는 (18)과 하등 다른 점이 없다. “-스-”의 缺如가 統辭構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時相이나 場面上의 差異도 보여 주지 않는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意味上의 特殊性은 찾아 내어야 한다. 用例가 하나뿐이어서 用法을 一般化시키기가 주저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18)에 대한 답변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18') “부테 圓通을 무르신씨 내 證호멘 音聲이 上이로소이다”(口訣文省略)(楞嚴 5:32b-33a)<sup>23)</sup>

用例(18)은 세존이 모든 大菩薩에게 하는 말인데 그 답변이 (18')와 같이 “-도소이다”로 끝나 있다. (18)은 情感性보다는 樣態性과 더 밀접하지 않나 한다. 무슨 方便으로 삼마지에 들었는지 청자에게 확신성 있게 답변해 달라는 화자의 意圖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에 응하는 답변도 “-도소이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音聲이 上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用例(19)는 確信性이 缺如된 질문이다. 따라서 그 답변도 (18)과는 달라나타난다.

(19') “산것 주기며 허리 구것는 두 業으로 報를 受호라”(月釋 21:56ab)

用例(19)는 光目이 婢子에게 樣態性의 介入없이 단순하게 질문한 것인데 婢子의 답변인 (19')에서도 단순한 說明法語尾로 相應하고 있다. (18)(18')와는 좋은 對照를 보여 준다. 命令法에서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20) “너희들허 아른스라 내 지비 이실 찌기 受苦호며 이려호니 이런 因緣으로 道理를 得호라”(月釋 10:26a)

(21) “너희 아른라 一切天의 불로 如來入 棺을 문 스습는 거시라”(釋詳 23:45b)

用例(21)은 “-스-”이 缺如된 語形이지만 用例(20)과 比較할 때 統辭構造나 場面上의 특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 (20)은 파라문이 釋女에게 자기가 得道하게 된 경위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청자에게 信念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意圖의 작용과 관련시켜야 한다.

23) 32장부터 이러한 用例가 반복되어 나온다.

(21)과 같은 단순한 “하야라”形式의 命令法에서도 그러한 用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스-”의 挿入은 그것을 한층더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같은 화자의 같은 청자에 대한 말에서도 “-스-”이 介入될 수 있고 缺如될 수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화자에게 달린 문제인 것이다.

(22) “너희들히…느외야 모습 게을이 먹디 마라스라”(釋詳 23:12a)

(23) “네 聖師 | 느외야 닐흔 아홉히에 하을 이물 하마 마초니 너희들히 힘써스라. 바미 하마 싸이 어다. 게으른 뜰 먹디 마아라.”(釋詳 23:13a)

두 用例 모두 부처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이다. (22)에서는 “먹디 말-”에 “-스-”이 介入된 데 대해 (23)에서는 빠져 있다. 이는 “-스-”의 기능이 動搖되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

이러나 不定法(1)에 속하는 “-으-, -스-”은 화자가 사태를 情感的 내지 樣態的으로 認識할 때 쓰이는 意味上의 共通性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主體가 非話者일 때 나타나는 “-으-”은 一方的 通報機能과 함께 情感性의 用法이 우세하였으며 主體가 話者일 때 나타나는 “-스-”은 情感性과 樣態性이 交錯되는 樣相을 보여 준다. 한편 疑問法과 命令法에서 樣態的 用法만 파악되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 4.2.2. 直說法

直說法이라 함은 直說法 “-느-”를 先接한, 圖表에 提示된 實在形 “하눗다, 하노소이다, 하노소니”; 하노소라, 하노순다, 하노소니”를 總括하는 것이다.

(1) “네 오히려 아니 몰하눗다”(=汝猶不知로다) (楞嚴 3:77a)

(2) “부테…오늘 또 우업슨 못 큰 法輪을 옮기시노소이다”(口訣文省略) (法華 2:46b-47a)

(3) “一切 善根이 마자 無上心을 돕습노소이다”(=一切具善根하야 以助無上心이로소이다) (法華 5:185b-186a)

위의 用例들은 相關의 場面에 쓰인 것이다. 用例(1)은 부처의 阿難에 대한 말인데 對話라기보다는 一方的 通報行爲에 가깝다. (2)(3)은 “하눗다”의 “-오/우-”統合形과 形式이 같다. 그러나 統辭構造는 달라서 (2)의 主體는 “부처”, (3)의 主體는 文面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十方諸天”으로 간주된다. 특히 (2)의 主體가 話者 자신이 될수 없음을 尊敬法의 先語末語尾 “-(으)시-”의 나타남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用例(2)도 (1)과 같이 一方的 通報行爲에 가깝다. 四部衆比丘尼 등이 舍利弗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用例(3)은 미륵보살이 부처에게 하는 말로서 (1)(2)보다는 兩方的 通報行爲의 성격이 짙다. 이 말에 이어 부처의 말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用例는 獨白으로 간주된다.

(4) 俱夷 너기샤덕 <이 男子 | 精誠이 至極을써 보비를 아니 앗기눗다>하거늘(月釋 1:11ab)

(5) 聖主入 나라래 盜賊이 하니 賢臣의 버스리 놓눗다(原詩省略)(杜諺 24:2b)

用例(4)는 “너기샤덕”로 미루어 獨白이다. (5)는 [+상태성]의 用言에 “-눗다”가 統合된

것인데 “현신의 벼슬이 높아 가는구나”와 같이 [-상태성]의 動作類의 기능을 보여 준다. 이것도 두보 자신의 獨白으로 볼 수 있다. 두 用例의 主體는 非話者이다. (4)의 것은 “男子”, (5)의 것은 “賢臣의 벼슬”이다.

앞에서 우리는 “-늦도-”를 “-늦-”의 隨意變形으로 다룬 일이 있거니와 (§4.1.1), 이는 統辭的 側面에서 뒷받침된다.

(6) 구름 켜 마르매는 툇미치 軒檻에 오락늦도다(原詩省略)(杜諺 8:25b)

이것도 두보 자신의 獨白으로 간주될 수 있는 用例인데 主體는 “툇빛”으로서 非話者이다. 다음은 地文이다.

(7) 다오매 썰리 가늦다(=驟趨於盡 | 로다)(楞嚴 2:7ab)

(8) 년즈서 本來스 무수물 일허 버리늦다(=等閑히 失却本來心이로다)(南明下:34a)

用例(7)은 협주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地文이고 (8)은 本文의 地文이다. 이들은 主體가 文面に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非話者로 간주된다.

(9) “西方에 聖人이 나지노스니 이 後로 千年이번 그 法이 이에 나오리로소이다”(月釋 2:49a)

(10) 하눌히 서늘커늘 白鶴이 華表에 도라오노스니 히 디기든 靑籠을 몹 가온디 보리로다(原詩省略)(杜諺 15:35a)

用例(9)은 主體가 非話者(“聖人”)인 점에서, 그리고 尊敬法의 先語末語尾 “-(으)시-”가 統合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지노스니”의 同化形일 시 분명하며 (10)은 “白鶴”이 主體로 간주되므로 “\*도라오노스니”의 同化形으로 보아야 한다.

直說法에 나타나는 “-웃-”의 用法도 不定法(1)의 “-웃-”과 크게 다르지 않다. 相關的 場面보다는 單獨的 場面이나 이에 가까운 發話行爲에 쓰이고 있다. 主體가 非話者인 점도 不定法(1)의 “-웃-”과 共通된다. 不定法의 “-웃-”이 非話者인 主體와 呼應된다는 것은 그것이 尊敬의 “-(으)시-”와 통합된다는 점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差異點이라고는 時相인데 그것은 先語末語尾 “-느(ㄴ)-”의 插入與否에 依存하는 것이다. 그러면 直說法에 나타나는 “-웃-”의 기능은 무엇일까? 不定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웃-”이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究明되어야 한다.

(11) “내 正히 니르고지커늘 네 이제 또 묻는다”(月釋 23:97a)

(12) “世尊이 弟子 阿難 羅雲이들 더브르샤 하마 오시느이다”(月釋 10:8a)

(13) 미헛 새 놀애 브르느다(口訣文省略)(金三 3:14a)

(14) “諸佛도 出家 하샤사 道理를 닷마시느니 나도 그리 호리라”(釋詳 6:12a)

用例(11)은 부처가 目連에게 하는 말인데 2人稱 代名詞 “너”가 主體로 되어 있는 점 등 用例(1)과 統辭構造가 일치한다. (12)는 大稱王이 淨班王에게 하는 말로서 用例(2)(3)과

같이 主體가 3人稱(“世尊”)이며 (13)은 頌에 나타나는 것인데 用例(7)(8)과 같은 地文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用例(14)도 用例(9)(10)과 統辭構造面에서 차이가 없다. “-웃-”이 缺如된 語形은 그것이 挿入된 語形과 統辭的 側面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兩方的 通報機能의 우세하다. 直說法的 “-붓-”에서 관찰되는 一方的 通報機能은 不定法的 경우와 마찬가지로 “-웃-”의 지시내용에 말미암는다. 不定法과 같이 화자의 感情이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 表示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用例(2)(3)(4)(5)(6)(9)는 “놀랍게도, 뜻밖에도, 신기하게도” 등의 적극적인 情感性 부사를 挿入할 수 있고 用例 (1)(7)(8)은 “유감스럽게도, 아쉽게도” 등의 소극적인 情感性 부사의 補充이 가능하다. (9)는 周의 昭王이 天地에 瑞氣가 가득차는 것을 보고 群臣에게 물으니 태사벼슬로 있던 蘇由가 왕에게 사퇴는 말인데 情感性보다는 樣態性과 관련된다. “확실히, 틀림없이” 등의 부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12)(13)(14)는 情感性 부사의 挿入을 허용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先後를 고려할 때 화자는 사태를 그저 단순하게 認識하였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느”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用例(11)은 앞에 “마장 도타 흰히 불느다”가 오는 것을 보아 사태를 정감적으로 파악한 것이 틀림없으나 “-붓-”이 쓰이지 않았다. 앞의 부정법에서도 본 바와 같이 (§4.2.1.), 화자에게 依存하는 것이다.

直說法的 “붓”에 “-오/우-”가 統合된 形式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5) 마술 오매 서르 도라본던 오히려 다붓 빌여 둔니도 하니 丹砂에 나야 가디 물호물 葛洪을 붓  
그리노소라(原詩省略)(杜諺 21:34a)

(16) “우리도 이 偶를 좃츠바 외오노소라”(月釋 8:100b)

(17) 方舟호매 비출 쓰디 아니호노소니 마장 눈 뼈 보니 畚저리 업도나(原詩省略)(杜諺 15:31a)

用例(15)(17)의 主體는 杜甫 자신으로서 話者이며 (16)은 安樂國이 八姝女들에게 偶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묻자 그 경위를 설명하는 말로서 主體는 역시 話者 자신이다.<sup>24)</sup> 不定法的 “-스-” 挿入形의 “-오/우-” 統合形과 그 用法이 併行한다. 直說法的 “-오/우-” 統合形의 기능 또한 “-웃-”이 缺如된 語形 “붓그리노라, 외오노라, 쓰디 아니호노니”와의 비교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15)(16)은 情感性으로써, (17)은 樣態性으로써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用例(15)는 “유감스럽게도”, (16)은 “기꺼이”, (17)은 “자신감에 넘쳐” 등의 情感 내지 樣態表示의 부사를 補充할 수 있기 때문이다.

直說疑問法에 나타나는 “-스-”도 不定法的 “-스-”과는 勿論, “-웃-”과 그 意味가 같지 않은가 한다.

24) 다음의 用例는 用例(10)과 같이 主體를 3人稱(“災禍”)으로 잡아야지 1人稱(“우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오노소니”는 “\*오노소니”의 同化形인 것이다 (§4.1.1.).

六師의 무리...너교되<우리 이제 喪호 災禍> 하마 오노소니 이제 天人大衆에 가사 호리르다>호고(釋詳11:14b)

(18) “너희들히 므스쿨 보느슨다”(月釋 10:28a)

不定法の “느슨다”와 같이 알려진 例文은 하나밖에 없다. 用例(18)은 五百群賊이 서로 “우리들히 여러 히를 도죽호더 이 곤느니 본 적 업다”라고 말하는 것을 위두도적이 듣고 묻는 말이다. 이것에 나타나는 “-스-”의 意味는 “-스-”이 缺如된 다음과 같은 例文과의 비교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19) “므스쿨 얼느다”(月釋 1:36b)

이는 한 比丘가 허공을 만지는 것을 다른 사람(“놈”)이 보고 묻는 말이다. 用例(18)과 비교할 때 統辭構造나 時相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態度에서 意味上的 特殊性을 찾아야 한다. 用例(18)에 대한 답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 “한 노미 큰 象 타고 오시며…하나히로소니 우리들히…곳니 아니호리로소이나”(月釋10:28ab)

不定法の “-스-”과 마찬가지로 (§4.2.1.), “-도소니, -도소이다”로 나타난다. 이는 “-스-”과 “-돛-”의 意味上的 共通性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한다(後述). (18)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무슨 희한한 일이 있기에 그렇게도 놀라와 하는지 確信性 있게 답변한 것을 要求하게 되니 그 답변도 또한 確信성 있게 陳述되어야 하므로 “-돛-”이 插入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19)에 대한 답변은 “내몸 얼노라”이다. 물음에서도 답변에서도 樣態性이나 情感性과 관련된 화자의 어떤 意圖를 읽어 내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스-”의 意味를 그것이 缺如된 語形의 물음과 답변과의 비교에 의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直說法에 나타나는 “-돛-, -스-”의 意味도 不定法の 그것과 같다. 화자가 사태를 情感的 내지 樣態의으로 파악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主體가 非話者일 때는 一方的 통보기능과 함께 情感性이 우세하였고 疑問法에서는 樣態的이었으며 主體가 화자일 때는 두 가지의 기능을 쉽사리 구별하기 힘들음을 지적할 수 있다.

## 4.2.3. 推測法(1)

推測法(1)은 先語末語尾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호리삿다, 호리샤스이다”를 가리킨다.

(1) “十方如來도 後에 만드기 煩惱 호시리샤이다(=十方如來도 後應煩惱 | 샤스이다) (圓覺上 1-1: 10b, 8a)

(2) 기괴 아리샤 아리브니 바즈지나 어후 솔오리삿다(=可謂深知宿契 삿다)(法華 4:70ab)

用例(1)은 넥스트의 앞 부분이 “菩薩入 詰難 호샤면 쁘데 니르샤티”인 점으로 보아 一方的 通報行爲일 가능성이 길다. (2)는 첨주 지문이다. “-(으)리-”가 表示하는 時相은 (1)에서는 時間 副詞 “後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發話時 이후이며 (2)는 그 事件時가 發話時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推測法(1)에 나타나는 “-웃-”, 자세히 말하면 “-삿-”의 意味는 이것이 缺如된 “煩惱”시리이다. “술오리라”와의 비교에 의하여 究明되어야 한다. 그러나 提示된 用例만으로도 충분하다. 樣態性 副詞 “반드기, 어루” 등으로 미루어 樣態性의 觀點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4.2.4. 回想法

回想法은 回想法 “-더-”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닷다, 하다스이다; 하다소라, 하다소이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1) <如來 恩惠를 아르샤...父母孝養 하시닷다> 香高(月釋 21:208a)
- (2) <우리들히 요스이에 大師 거신 파홀 모르다니 切利天에 거시닷다>(月釋 21:201a)

用例(1)은 放逸衆生이 三千大千世界에 들리는 부처의 비파[琴]소리를 듣고 부처의 행적을 찬양·독백하는 것이며 (2)는 如來가 곧 열반에 든다는 鳩摩羅의 傳言을 듣고 衆生들이 獨白하는 말이다. 主體는 모두 非話者이다.

- (3) “내 지운 큰 罪를 이제 比丘의 懺悔하노니 내 하던 이리 甚히 의나스이다”(釋詳 24:18a)
- (4) “(어마님) 주거 化樂天宮에 나시리어늘 天宮에 몸 보수보니 도르며 地獄에 거시다스이다.”(月釋 23:86b)

用例(3)은 王이 比丘에게 함장하고 하는 말로서 一方的 通報行爲다. (4)는 目連이, 생전에 佛道를 열심히 받들어지 化樂天宮에 태어날 줄 알았던 그의 어머니에게 고향치며 하는 말이다. 目連이 처음 어머니를 내렸을 때 “어마님, 어마님 사라 겨심 저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텍스트가 얼마나 一方的이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用例 다 正常的 對話의 狀況에 놓여 있다고 하기 어렵다. 用例(1)(2)의 범주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主體는 모두 非話者的인 것이다. (3)의 主體는 “일” (--- 참조), (4)의 主體는 2人稱의 用法을 띤 “어머니”다.

- (5) 장초 나비 히다 너기더니 조 거므니 잇닷다(口訣文省略) (金三 4:22b)

위의 用例는 “頌”으로서 地文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主體는 “거므니”이다.

回想法의 “-웃-”도 獨白이나 이와 비슷한 一方的 陳述에 나타나서 單獨의 場面の 用法이 절대적이다. 主體의 事件時는 화자의 經驗時點과 일치한다.<sup>25)</sup> 用例(1)은 動作이, (2)(4)(5)는 存在가, (3)은 狀態가 經驗 당시 각각 現在의 입을 표시한다.

回想法에 나타나는 “-웃-”의 기능도 前述한 不定法, 直說法, 推測法과 같이 “-웃-”이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서만 해명되어야 한다.

- (6) “그릿 싸를 맞고져 하더이다”(釋詳 6:15a)

25) 中世語의 回想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될 것이다.

(7) 쁘레 불 바즌 이리 나 願マ터 ㄷ의더라(月釋 10:30b)

用例(6)은 娑羅門이 護彌에게 하는 말이다. 用例(3)(4)와 비교할 때 完全한 兩方的 通報行爲다. (7)은 地文의 用例로서 (5)와 비교될 수 있다. “-닷-”의 通報機能이 一方的임은 그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1)(2)(5)에는 “놀랍게도, 뜻밖에도” 등의 적극적 情感표시의 부사가, (3)(4)에는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등의 소극적 감정표시의 부사가 각각 보충될 수 있다. 그러나 (6)(7)은 텍스트상으로 볼 때 이러한 부사의 보충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워 보인다.

“-닷-”에 “-오/우-”가 統合되는 用例를 檢討해 보자.

(8) 스펠히롤 조차 든너 흰히 長安에서 醉ᄃ다소라(原詩省略) (杜諺 16:18a)

(9) 부터 니르지는 解脫을 우리도 得ᄃ야 涅槃에 다드문가 ᄃ다소니 오ᄃ날 이 쁘들 불 아수ᄃ리로나(釋詳 13:43b)

用例(8)은 主體가 杜甫로서 話者 자신이며 (9)는 대중 가운데서 두 사람이 獨白하는 상황에 쓰인 것이다. 두 用例의 時相은 “ᄃ다다”와 일치한다. 回想法의 “오/우” 統合形은 “-웃-”이 缺如된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 그 기능이 분명해진다.

(10) 네 가난ᄃ미 나 甚ᄃ야 히 편안티 아니ᄃ블 ᄃ가지로 시름ᄃ다라(原詩省略)(杜諺 24:5b)

(11) “내 상네 이리 니르다니 舍利弗아 아라라”(釋詳 13:60a)

用例(10)의 주체는 두보 자신으로서 (8)과 비교될 수 있고 (11)은 (9)와 관련시킬 수 있다. “-닷-”의 “-오/우-”統合形도 不定法, 直說法과 같이 화자의 정감적 내지 양태적 태도와 관련된다. (8)은 적극적 감정표시의 부사를 보충할 수 있다. 이에 비교될 직한 (10)은 화자의 감정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곧 슬픈 모습으로 浮刻되어 있다. 直說法의 用例(15)를 참조하면 마땅히 “시름ᄃ다다”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화자에게 달려 있다. 語調 등 다른 수단에 의해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면 “-닷-”을 안 쓸 수도 있다. 用例(9)는 “틀림없이” 등의 樣態性 부사를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樣態로써 설명해야 할 것이다.

#### 4.2.5. 推測回想法

推測回想法이란 推測法과 回想法의 統合인 “-(으)리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ᄃ리랏다, ᄃ리라스이다”를 대상으로 한다.

(1) “ᄃ다가 큰 法 즐길 ㅁ수ᄃᄃ ㄷᄃᄃᄃ 부ᄃ 날 爲ᄃ샤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口訣文省略) (法華 2:232)<sup>26)</sup>

(2) ᄃ다가 내 큰 法 즐ᄃᄃᄃ 으로 ㅁᄃᄃ샤미 오라시리랏다(口訣文省略)(法華 2:231b-2a)

26) 같은 法華經을 底本으로 한 月印釋譜에는 다음과 같이 表現되어 있다.

“ᄃ다가 우리 큰 法 즐기는 ㅁ수미 ㄷᄃᄃᄃ 부ᄃ 우리 爲ᄃ야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 (月釋 13:36a)

用例(1)은 佛弟子들의 一方的 陳述이다. (2)는 本文에 대한 협주의 用例로서 地文 내지 獨白으로 볼 수 있다. 두 用例가 表示하는 時相은 經驗時 이후이다. 이 語形의 意味는 “-오-”이 缺如된 “하리러라”와의 對比에 依存해야 한다.

(3) “得大勢여...여러가짓 도훈 根源을 시르고 後에 조 千萬億佛을 만나수파 조 이 經典을 닐어 功德이 이리 당다이 부네 하리러라”(釋詳 19:33b-34a)

(4) 네 梵摩羅國 林淨寺에 光有聖人이 五百弟子 드러 겨사 大乘小乘法을 니르샤 衆生을 教化하시 더니 그 數 | 불내 하리러라(月釋 8:90b)

用例(3)은 對話란 점에서 (1)과, (4)는 地文이란 점에서 (2)와 각각 그 通報行爲가 비슷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例文에서는 “-오-”의 插入與否가 統辭構造에 影響을 미치지 않았는데 推測回想法의 경우는 통사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하리랴다”의 構文은 假想的 從屬節을 이끌고 있다<sup>27)</sup>(---- 참조). 이러한 特殊性이 어디에 말미암는지는 쉽게 斷定할수 없지만 “하리랴다”도 다른 “-오-” 統合形과 마찬가지로 話者의 態度和 관련지어 說明해야 한다. 用例(1)은 어떤 일이 충족되었다라면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화자가 아쉬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이 缺如된 (3)은 과거의 사건시 이후에 일어날 일을 推定하는 것이다. 用例(2)는 (1)의 協주인데 같은 解釋을 내릴 수 있다. 내가 큰 法을 즐겼더라면 오로지 말기심이 오렐 터인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등의 부사가 插入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樣態性을 表現한다고 하겠으나 화자의 깊은 의도는 정감성으로 해석된다. “아쉽다. 유감스럽다” 등의 意味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推定하는 것이다.<sup>28)</sup> 一方的 通報機能과 함께 화자의 情感的・樣態의 態度的 反映이 “하리랴다”의 用法이라 하겠다.<sup>29)</sup>

“하리랴다”의 “-오/우-” 統合形- “\*하리로소라”는 아직 그 用例를 찾지 못했으나 충분히 기대될수 있는 語形이다(§4.1.1.).

#### 4.2.6. 確認法<sup>30)</sup>

確認法이란 話者 標識의 確認法 “-과-”가 先接된, “하과소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確認法의 先語末語尾 “-과-”의 “-오-” 統合形 “\*하팠다”는 나타나지 않고 이에 先語末語尾 “-오/우-”가 統合된 “하과소라”만이 나타난다.

27) 李仁模(1976:164)에도 “-(으)리랴다”가 叙想法(subjunctive mood)만으로 쓰인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하리러러라”도 “하리랴다”와 統辭構造가 같을 수가 있다(§2.2.4.).

28) 地文의 “-더-”는 回想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될 것이다.

29) 靑山別曲의 다음 구절도 推測回想法에 “-오”이 統合된 것으로 이해된다(李仁模 1973:116-122; 1976:164-173)

살어리 살어리랴다 靑山에 살어리랴다(樂章歌詞).

우리가 檢討한 “-오-”의 기능에 의하면 이 用例는 獨白에 가까운 一方的 通報行爲로 간주해야 한다.

30) 中世語의 確認法에 대해서는 Ⅲ장 참조.

(1) 江淹鮑照의 韻 體 | 流傳호매 서로 도라본된 아들 업소물 免과소라(原詩省略)(杜諺 21:31b)

主體는 註의 “言甫 | 與暉로 皆有傳業之子也 | 라”를 참고할 때 두보 자신임에 틀림없으며<sup>31)</sup> 그것이 나타내는 時相은 發話時直前이거나 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正히 이 江南에 風景이 도흐니 곳디는 쏘 너를 맛보과라(原詩省略)(杜諺 16:52b)

用例(2)는 杜甫가 李龜年을 다시 만나게 됨을 確認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1)에는 情感性이 反映되어 있다. 이 시는 두보가 畢暉와 함께 자기들의 學問을 계승해 줄 아들들이 있음을 서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4.2.7. 不定法(2)

不定法(2)에는 推測法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호도다, 호도소이다, 호도소녀, 호도소니; 호도소이다”가 포함된다.

(1) “잘 오도다. 羅卜아”(月釋 23:76b)

(2) “그의 精舍 지우려 터홀 又 始作호야 되어늘 여섯 하나래 그의 가 들 찌비 불씨 이도다”(釋詳 6:35b)

(3) <내 地藏威神力을 보니 恒河沙劫에 다 닐우미 어렵도다>(月釋 21:172a)

(4) <恭敬호습는 法이 이러홀 거시<sup>로</sup>다>(釋詳 6:21a)

用例(1)은 세존이 출가하는 羅卜에게 하는 말로서 問答이 아닌 一方的 通報行爲다. (2)는 수달의 물음에 대한 사리불의 답변인데 對話라기보다는 一方的 通報行爲의 性格이 강하다. (3)은 세존이 관세음보살에게 지장경을 流布할 것을 勸告한 뒤에 偈로써 하는 말이니 獨白으로 볼 수 있다. 用例(4)는 首陁會天이 수달의 버릇없는 行動을 보고 네 사람으로 化身하여 세존을 옹위하니 수달이 마음이 편치 않아 (4)와 같이 말하고 마침내 세존을 받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수달의 말은 완전한 獨白이다.

위의 用例들의 時相은 不定法(1)과 완전히 일치한다. 用例(1)은 事件時가 發話時와 거의 일치하거나 發話時 直前으로 해석된다. (2)는 時間副詞 “불씨” 등으로 미루어 事件時가 發話時보다 훨씬 앞선다. 그런데 (3)(4)의 事件時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이는, 不定法(1)의 “-웃-”과 같이 用言의 動作類의 特性과 관련된다. 主體는 모두 非話者다. 用例(1)은 2人稱, (2)~(4)는 3人稱이다(—— 참조)

“호도다”의 호쇼셔體도 兩方的 通報기능이 다소 우세하다는 점 이외에는 호리體와 큰 差異가 없다.

(5) “小人이 忒실 지피 잇디 아니호다니 얼우시니 어제 홀 디위 속절업시 든너지도쇠이다”(朴初上: 52b)

31) 허웅(1975:798)에도 같은 사실이 지적되어 있으나 形態素를 識別하는 기준은 다르다(後述).

- (6) “太子 | 그런 사락미시면 이 이리 어렵도소이다”(釋詳 11:19b)
- (7) “天女를 보건넌 내 거지비사 눈먼 獼猴 곧도소이다(月釋 7:12b)
- (8) “羅卜이 룬다면 내 빛소에서 난 야기로소이다”(月釋 23:86a)

用例(5)는 두 사람의 兩方的 通報行爲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6)은 大臣이 太子의 말에 應酬하는 것이다. 더우기 太子의 말이 “내 모미 썬죽하도다”와 같이 “-도다”로 끝나 있는 것은 “-도소이다”와의 尊卑法上的 關聯性을 잘 뒷받침한다(§4. 1. 1.). 用例(7)은 難隨가 부처에게, (8)은 獄主의 陳述에 대해 羅卜의 어미가 意見을 陳述하는 것으로서 一方的 通報機能이 길다.

時相은 ㅎ라體와 같이 用言의 動作類의 特性에 말미암는다. 用例(5)는 時間副詞 “어제”를 고려하면 事件時는 發話時보다 앞서며 (6)(8)은 發話時와 일치한다. 用例(7)은 사정이 좀 다르다. 부처가 天女를 보고 온 難隨에게 “네 거지비 고보미 天女와 엇더ㅎ더뇨”라고 묻자 (7)과 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때의 “-듯-”은 形容詞 “곧-”에 統合되기는 했어도 눈먼 미후같이 느낀 것은 天女를 본 당시이므로 回想法 “-더-”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러한 用法은 드물고 形容詞와 指定詞와 統合될 때는 事件時가 發話時와 일치한다.<sup>32)</sup> ㅎ쇼서體에 있어서도 主體는 非話者이다(一一 참조).

다음으로는 疑問法에 나타나는 語形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9) “ㅎ 大藏教 | 이 사관 거시어시니 아래 이 無百字도 사기도소니야”(口訣文省略)(蒙法:60b)
- (10) “趙州사 쓰든 果然 그리ㅎ도소니야 아니ㅎ도소니야”(口訣文省略)(蒙法:56-57)

用例가 모두 具體的 狀況을 파악하기 힘든 蒙山法語에만 나타난다. “하리로소녀”(後述)로 미루어 正常的 對話로 생각된다. 時相은, 用例(9)에서는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고 (10)에서는 일치한다. 前者는 統合用言이 [-상태성]을 띠고 있을뿐 아니라 時間副詞 “아래”로 미루어 그러함의 틀림없으며 後者는 [+상태성]의 動作類를 表示하는 데 말미암는다. 主體는 2人稱 내지 3人稱으로 想定된다.

- (11) 尙書의 功業이 千古사 사락미게 건너 뛰도소니 荊州를 雄히 놀리쇼물 내 한아비를 니엇도다  
(原詩省略)(杜謔 25:48a)
- (12) 우리 설흔 사락미 각각 돈 일빅곰 내번 대묘히 돈이 삼천나치로소니 유에 브리로나(初朴上:1b)

用例(11)은 獨白으로 보인다. 이곳의 尙書는 荊南 節度使 衛白玉을 가리킨다. 그가 형주를 다스린 杜甫의 먼 祖上 杜預의 뒤를 계승하게 되었음을 찬양한 것이다. (12)는 봄을 맞아 돈을 거두어 봄놀이하러 가자는 것을 大衆에게 提議하는 것으로 一方的 通報機能이 길다. “ㅎ도소니”에 “ㅎ도다” 등이 呼應한다는 것은 두 語形에 나타나는 “-듯-”의 共通機能

32) 南廣祐(1975)에는 “-도소이다”의 意味를 “-더이다, -디이다”로 풀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用例(7)이 나와 있지 않는데도 이렇게 풀 것은 再考해야 할 것이다.

을 暗示하기도 한다(―― 참조). (11)도 그러하다. 時相과 主體는 앞의 경우에 類推해서 생각할 수 있다.<sup>33)</sup>

不定法(2)에 나타나는 “-뫓-”의 기능은 무엇일까? 그것은 “-뫓-”이 缺如된 “하다, 하녀, 하니”와의 비교에 의해 解明되어야 한다. 한편 “-웃-”이 插入된 不定法(1)의 語形 “하샷다”와도 긴밀한 關係를 맺어야 한다.

用例(6)을 不定法(1)의 用例(8)(§4.2.1.)과 比較해 보자. 편의상 그 用例를 다시 든다.

(13) “太子入 모미 傷하야 命이 머디 아니하시이다”(釋詳 11:21b)

用例(6)은 父王의 重病에 필요한 눈동자와 골수를 제공하겠다는 태자의 말을 듣고 대신들이 하는 말이다. 계속하여 친하에 아까운 것이 목숨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化자의 消極의 情感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대신들의 意圖는 태자를 除去하는 目的이 있었던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化자의 積極적 感情이 含蓄되어 있다. 이에 대해 用例(13)은 태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6)에는 “-뫓-”이 插入되었고 (13)에는 그것이 缺如된 것이 아닌가 한다. 化자의 意圖와 관련된 이러한 意味는 不定法(1)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4.2.1.). 이러한 情感性을 表示하는 것은 用例(6) 이외에도 (1)(2)(5)를 追加할 수 있다. 用例(1)(2)는 “다행히도” 등의 부사가, (5)는 “뜻밖에도” 등의 부사가 補充될 수 있기 때문이다. 用例(3)(4)(7)(8)은 오히려 樣態的인 意味와 관련되지 않나 한다. “진실로, 정말” 등의 부사가 어울릴 수 있음을 보아서이다.

疑問法에서는 樣態的인 意味가 파악된다. 用例(9)(10)을 다음 用例와 比較해 보자.

(14) 이는 萬丈 허닐 得하니아 馬祖 허닐 得하니아(蒙法:31ab)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斷定할 수 없으나 (9)(10)은 청자에게 確信性 있는 答변을 要求하지 마는 (14)는 단순한 물음으로 간주된다. 不定法(1)의 “하스다”와 直說法의 “하스스다”에서 볼 수 있었던 用法과 軌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4.2.1;4.2.2.).

接續의 連結語尾 “하도소니”는 “-뫓-”이 缺如된 “하니”와의 比較에 의해 意味가 究明되어야 한다.

(15) “이 마장 豆餵 藥이니 色香美味 다 마즈니 너희들히 머그라”(月釋 17:18a)

이는 毒藥을 잘못 먹은 아들들에게 아버가 救療할 약을 주며 하는 말인데 用例(12)와 다른 점은 兩方的 通報行爲인 對話에 나타나는 것이다. “-뫓-”이 插入되면 一方的의 陳述의 성격이 짙어지고 따라서 化자의 情感 내지 樣態의 態度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1)

33) 이런 例들은 杜詩諺解의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李丙疇(1970:134, 188, 190, 295, 298, 319) 참조.

에서는 積極의 情感性이, (12)에서는 樣態性이 각각 파악된다. 前者에는 “놀랍게도”와 같은 부사의 補充이 가능하고, 後者에는 “틀림없이”등의 부사가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論議해 본 “-듯-”은 不定法(1)의 “-듯-”, 곧 “-듯-”으로 바꾸어도 조금도 意味의 差異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는 “-듯-”과 “-듯-”의 意味上的 同質性을 保證해 준다(後述).

“-하도다”에 “-오/우-”가 統合된 形式을 검토해 본다. 이 形式에는 “\*하도소라”의 歎息體인 “\*하도소이다”의 同化形 “하도소이다”만 들 수 있을 듯하다.

(16) “내 몬져 드도소이다”(釋詳 24:18b)

이 用例는 “곳 치셔미 뉘 몬져 이 門 안해 드노”라는 王의 물음에 대해 모진 놈이 답하는 것이다. 時相은 시간부사 “몬져”가 아니라 하더라도 統合用言이 [-상태성]의 動作類를 띠고 있으므로 事件時는 發話時에 先行한다. 이런 점에서 위의 用例는 不定法(2)의 테두리에 들어오며 主體가 話者인 점에서 “-오/우-”의 統合形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形式의 意味는 “-듯-”이 缺如된 “호이다” 語形과의 比較에 의해서도 究明될 수 있고 “-入-”이 插入된 “하소이다”와의 관련에 의해서도 그 성격이 規定될 수 있다.

不定法(1)의 用例 (14)~(16)(§4.2.1.)은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일을 單純히 叙述하는 데 대해 “\*하도소라” 語形은 樣態성과 관련된 意味를 表示한다. 위의 用例(16)은 “틀림없이, 정말로” 등의 부사를 補充할 수 있다. 이 경우 “드소이다”로 바꾸어도 意味上的 差異가 없다. 이는 不定法(2)의 “\*하도소라”의 意味가 不定法(1)의 “하소라”와 同質的임을 말하는 것이다(後述).

4.2.8. 推測法(2)

推測法(2)는 推測法 “-(으)리-”가 先接된, 圖表의 實在形 “하리로다, 하리로소이다, 하리로소녀, 하리로소니잇가, 하리로소니; 하리로형 다, 하리로소이다”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1) <내 솔 勝蠻(승만)이 聰明하니 부더운 보수병면 당다이 得道를 쥘리 하리니 사람 브려 닐어사 하리로다>(釋詳 6:40b)

(2) 壯 훈 양지 머뜨디 아니호미 돌논물 ㄱ툼 전츠로 가줄비디 물하리로다(口談文省略)(楞嚴 2:5b)

用例(1)은 波斯匿王과 末利夫人이 부처를 뵈고 하는 말이다. 正常的 對話라면 歎息體를 써야 할터인데 하리體로 되어 있는 것은 청자를 별로 意識하지 않는 獨白임에 그 原因이 있지 않나 한다. (2)는 협주에 나오는 말로서 地文이다. (1)의 事件時는 發話時 이후이며 (2)는 發話時와 일치한다. 主體는 둘다 “일반사람들”로 想定된다.

(3) “父王이 오늘…菩提心을 어루 發하서리로소이다”(=父王이…發…菩提心이 사소이다)(法華 7:135b-136a)

- (4) “聖子 | 나사 輪王이 드의사리니 出家하시면 正覺을 일우시리로소이다”(月釋 2:23b)  
 (5) “우리들히 이 노를 자면 사를 옷바비야 닐꿈누라도 굿디 아니하리로소이다”(月釋 10:28b)

위의 用例은 모두 “하리로다”의 하소서體이다. 用例(3)은 두 아들이 공중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합장하며 하는 말로 一方的 通報行爲다. (4)는 집치는 사람이 王에게 해몽하는 것으로 一方的 陳述의 性格이 짙다. (5)는 五百群賊이 爲頭 도적에게 하는 말로 역시 一方的 通報行爲의 범주에 든다. 時相은, 用例(3)에서는 事件時가 發話時와 일치하거나 직후 일 것으로 짐작되며 (4)(5)는 發話時 이후다. 主體는, 用例(3)(4)는 3人稱임에 틀림없으나(— 참조) (5)는 설명이 필요하다. 中世語의 “굿다”는 自動詞와 他動詞에 通用되므로 (5)의 “굿디”의 主語를 他動詞일 때는 “우리들<sup>ㅎ</sup>”로, 自動詞일 때는 “옷<sup>ㅂ</sup>”으로 잡을 수 있다. 前者라면 “-똥-”에 “-오/우-”가 統合된 “ㅎ도소이다”<sup>2)</sup>로 볼 수 있고 後者라면 “ㅎ도소이다”<sup>1)</sup>이 된다. 여기서는 우선 後者로 간주해 둔다.<sup>34)</sup>

疑問法에 나타나는 推測法의 “-똥-”도 不定法의 그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 (6) “어머니물 아라 보리로소니<sup>잇</sup>가”(月釋 23:86b)  
 (7) “이게 모트는 이 世界며 다로 世界엿 諸菩薩天龍鬼神을 네 數를 알리로소니<sup>여</sup> 모르리로소니<sup>여</sup>”(釋詳 11:4b-5a)<sup>35)</sup>  
 (8) “네 바르 알리로소<sup>녀</sup>”(初朴上: 14b)

用例(6)은 獄主가 目連에게 묻는 말인데 답변은 “몰라 보<sup>에</sup>라”이다. (7)은 세존이 文殊師利에게 묻는 말로서 답변은 “내 神力으로 一千劫에 해여도 몰내 알리로소이다”로 되어 있다. (8)은 형과 동생의 對話로 답변은 “알<sup>리</sup>로다”이다. 이로써 우리는 不定法(2)의 “ㅎ도소녀”와 함께 推測法의 “하리로소녀”는 正常的 通報行爲에 쓰임을 確認할 수 있다. 用例(6)은 어머니를 만나기 바로 전이니 事件時는 發話時에 後行하나 (7)(8)은 발화시와 일치한다. 위의 例文의 主體는 모두 말받는 상대인 第2人稱이다. 기대되는 답변의 主體는 第1人稱으로서 “-오/우-”가 統合된 活用形을 要求하게 된다(後述).

- (9) “이 世界엔 千佛이 나리로소니 이 劫 일후<sup>므</sup>란 賢劫이라 하저”(月釋 1:40ab)  
 (10) “관인들히 하마 거산<sup>하</sup>리로소니 살리 수을 돌어 가져 오라”(初朴上:7a)  
 (11) “네 이런 원 일들히 너는 일혹 사를 로호<sup>물</sup> 값간도 몰 보리로소니 오늘<sup>브</sup>터 後엔 나훈 아들 마티 호리라”(月釋 13:24b-25a)  
 (12) 이런 드로 반드기 마시 이서리어<sup>놀</sup> 마술 어더도 得디 몰하리로소니 아니 和흔 디 아니로다(口訣文省略)(楞嚴 2:102a)

用例(9)는 四禪天이 자기 무리들에게 一方的으로 하는 말이다. (10)(11)도 그러한 狀況

34) “굿다”의 統辭特性에 대하여는 許維(1955:26-27) 참조.

35) 같은 佛經을 底本으로 하고 있는 月印釋譜(21:14a)에는 “알리로소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하여 “하리로소니<sup>여</sup>”와 “하리로소녀”는 隨意變形임을 알 수 있다.